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지역·전문직 인력난 해법으로 부상

여기중, 중기부 지원받아 운영
여성기업 1.4만개社 회원 가입
전문인력 5.4만명 함께 등록
2017년부터 1.1만건 매칭 돌과

전담 매니저가 인재 발굴 지원
면접 조율부터 계약까지 원스톱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 갈무리.

제주 표선에 있는 여성기업 인스피어. 예술·기술 융합 콘텐츠 전문회사를 표방하며 2021년 설립한 이 회사는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XR(확장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제주 전통문화·지역 자원 기반의 실감형 콘텐츠와 미디어 아트를 제작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가 성장하고 일감이 늘어나며 AI·XR·미디어아트 제작 프로그래머 등을 추가로 고용해야 했다.

이 회사 송해인 대표는 "회사가 제주에서도 서귀포 표선에 있다보니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 기술자는 더욱 그렇다. 미디어아트 전공도 구하기가 어렵다. 제주에 있는 대학생들도 제주에 남을 것이냐, 육지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많다. 결국 제주에서 사람을 찾지 못해 전국으로 채용 범위를 넓혔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송 대표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을 활용했다.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사람을 찾고, 면접도 거리를 감안해 화상으로 바꿨다. 특히 출퇴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건도 변경했다. 이렇게 해서 송 대표는 개발 분야 2명과 마케팅 분야 1명을 채용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모두 제주 지역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송 대표는 "여성기업 일자리허브 플랫폼에는 전담 매니저가 있어 면접 등 채용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수월했다. 인재 추천도 많았고 채용 광고도 도움을 받았다. 지원자도 많았다. 채용을 하는데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5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2017년부터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성기업 약 1만4000개사와 5만4000여명의 전문인력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 그동안 일자리허브가 매칭한 일자리는 1만1000건이 훌쩍 넘는다. 특히 지난해에만 1725개 기업과 1만1654명의 전문인력이 새로 회원이 됐다. 작년 매칭건수는 1749건에 이른다.

이 플랫폼은 여성기업과 구직자를 매칭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게 목표다. 지원 대상은 중소

기업, 벤처기업, 스타트업 등 대표가 여성인 기업이면 모두 해당한다. 지원 가능 인력도 전문직, 프리랜서, 경력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 고경력자, 단순 노무인력 등 여성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면 된다. 성별도 상관없다.

여성기업 일자리허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여성기업 프로젝트, 지원인력 매칭(1대1 상담관리) ▲좋은 일자리 창출 여성기업 구인공고 홍보 지원 ▲업무용SW 및 클라우드 서비스 무료지원 ▲일자리창출 기업에 지원제도 연계(고용지원금·교육·창업·자금) ▲여성기업 특별금리 우대혜택 지원 등 폭이 매우 넓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전담 매니저를 통한 구인·구직 매칭 원스톱 서비스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사 분야 등에 특화된 전문인력 2명을 매니저로 채용해 운영하고 있다.

프로세스는 이렇다. 사람이 필요한 여성기업이 일자리허브 플랫폼에 구인 프로젝트(채용 공고)를 등록한다. 그러면 매니저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 요구 업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해 구직자를 발굴한다. 이때 매니저는 외부의 다양한 구인구직 플랫폼을 활용, 폭넓게 탐색해 적절한 인재를 찾아 기업에 추천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

록 기업과 추천 구직자간 면접 조율과 채용 계약까지 모든 과정을 매니저가 함께 한다.

또다른 여성기업 티앤지랩 김소영 팀장은 "실무자급 이상의 정규직 채용시에는 일자리허브의 도움을 전적으로 받고 있다"면서 "특히 일자리허브의 매니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올라와 있는 지원자와 회사가 찾는 인재, 직무 등을 매칭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매니저가 구직자와 회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많이 해 채용 업무를 매우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기업과 구직자가 내는 돈은 전혀 없다. 프로젝트 등록→인력 수요 조사→인재 스크리닝→인력 매칭의 모든 과정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업이 더욱 다양한 경로로 필요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여성기업 일자리허브에 등록된 프로젝트를 검색한 후 시중의 잡포탈사이트에도 채용공고를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면서 "채용공고를 플랫폼에 등록된 여성기업은 IBK기업은행을 통해 대출금리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에코프로·엘앤에프, 재활용 전략 온도차

에코프로, NCM 회수 가치 주목
엘앤에프, LFP 대응 체계 강화

배터리 재활용을 둘러싼 에코프로와 엘앤에프의 전략이 엇갈리고 있다. 전기차 시장에서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채택이 늘면서 재활용 경제성과 처리 역량이 새로운 경쟁 요소로 떠오른 가운데 에코프로는 삼원계(NCM) 배터리의 금속 회수 가치를 앞세워 원료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면 엘앤에프는 LFP 확산에 맞춰 LFP와 삼원계 배터리를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에코프로는 니켈·코발트·망간 등 고가 금속 회수가 가능한 삼원계 배터리의 재활용 경제성에 주목하고 있다. LFP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전기차 시장에서 채택이 늘고 있지만 삼원계 배터리는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고가 금속을 회수할 수 있어 배터리 생애주기 관점에서 경제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한 평가에서도 NCM 배터리의 재활용 비용 대비 편익은 1.06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LFP는 0.44에 그쳤다. 삼원계 배터리는 재활용을 통해 니켈·코발트·망간을 90% 이상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에코프로는 2020년 포항에 리튬 가공, 전구체, 양극재, 리사이클링으로 이어지는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을 구축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IGIP 산업단지 BNSI 제련소 지분 39%를 확보한 것도 자연광산과 도시광산을 결합해 삼원계 소재의 원료 조달 안정성을 높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엘앤에프는 LFP 재활용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지난달 29일 싸이아에스케미칼과 전략적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LFP와 NCM 리사이클링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엘앤에프는 싸이아에스케미칼의 재활용 역량을 기반으로 LFP와 NC



ChatGPT로 생성한 LFP배터리 이미지.

M 후처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2027년 내 LFP 리사이클링 역량을 우선 배정받아 고객사의 재활용 수요에 공동 대응하고 양극재 원가 절감을 위한 고순도 혼합수산화물 개발과 LFP 재활용 및 재소재화 기술 공동 연구개발도 추진한다. /원관희 기자 wkh@

소공연 출신 25명 광역·기초의회 입성

소상공인연합회 출신 지회장 등 25명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회에 진출, 소상공인 목소리를 전국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됐다. 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번에 당선된 소공연 출신 지회장, 임직원 등 25명의 지자체 의원은 각 지역에서 오랜 기간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와 규제 해소,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발로 뛴 인물이다. 소공연측은 연합회내 93개 업종단체 출신 지방의원까지 고려하면 이번 지방선거에 수백여명의 소상공인 업계 출신 당선자를 배출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에스원, 폭염 속 빌딩 에너지 해법 부상

AI BEMS로 냉방 효율 개선
IoT 건물관리로 시설사고 예방

여름철 폭염으로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건물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에스원의 빌딩 에너지 솔루션이 효율적인 건물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스원은 AI 기반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BEMS)'과 IoT 기반 '스마트 건물관리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절감은 물론 시설 안전과 ESG 경영까지 지원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빌딩의 44%는 준공 30년 이상 노후 건물이다. 단열 성능 저하와 설비 노후화로 냉방 효율이 떨어지면서 에너지 손실이 커지고 있으며, 사람이 없는 공간에서도 냉난방과 조

명이 계속 가동되는 등 운영 비효율도 적지 않다. 배관 누수나 침수 같은 시설 사고 역시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에스원의 '빌딩 에너지 솔루션'이 새로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해당 솔루션은 ▲에너지 사용 패턴을 학습해 최적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ESG 경영까지 돕는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 ▲IoT 센서를 활용해 누수·침수 사고를 예방하는 '스마트 건물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에스원의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BEMS)은 건물 곳곳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과 설비 운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SM C&C, 소상공인 글로벌 브랜드 육성

중기부·중기유통센터 점프업 추진
첫해 예산 30억... 경쟁률 30대 1

에스엠 컬처엔터테인먼트(SM C&C)가 소상공인 제품을 글로벌 시장에 팔릴 수 있도록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프리미엄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지원사업을 7월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브랜드 소상공인 점프업 사업은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TOPS)' 후속 고도화 사업으로, 경쟁력이 검증된 유망 소상공인 제품이 지닌 고유의 가치와 독창적인 스토리를 바탕으로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프리미엄 브랜드로의 도약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의 높은 관심 속에 약 3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종 선발된 30개사는 SM C&C가 'TOPS', '강한 소상공인' 등 기존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경쟁력과 성장성이 검증된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직접 선발했다.

사업 운영을 맡을 민간 수행기관 선정에는 국내 주요 종합 광고대행사들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소상공인에 대한 이해도와 마케팅·콘텐츠 기획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SM C&C가 최종 선정됐다. SM C&C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 계열사다.

최종 선정된 30개사는 오는 12월까지 약 6개월간 SM C&C로부터 1대1 맞춤형 집중 지원을 받는다. /김승호 기자

시몬스, 대구 신세계서 블랙 팝업스토어 운영

시몬스가 오는 19일까지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뷰티레스트 블랙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5일 시몬스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5층에 마련된 이번 팝업스토어는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구찌, 까르띠에 등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들이 밀집한 하이엔드 명품관 메인 동선에 자리잡고 있다. 여기에 기존 팝업들과 달리 고급스러운 베이직 톤 인테리어로 럭셔리한 분위기를 더했다. /김승호 기자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5층에 오픈한 시몬스의 '뷰티레스트 블랙 팝업스토어' 전경.